



Hong Kong

홍콩지사

식품소비 지도를 바꾸고 있는 대규모 시위

홍콩 시위, 한국 농식품 수출에도 영향 미쳐

6월에 시작된 홍콩 시위가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 및 유통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농식품의 對홍콩 수출은 2019년 6~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1% 감소했는데 인삼, 전복, 해삼 등 고가품과 맥주, 음료 등 소매업 유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는 인삼의 주 고객인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고가품 구매와 외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치, 가공육류, 과실류 등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늘었는데 시위로 인한 슈퍼마켓 매출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매부문 매출 감소, 필수식품 매출 증가

홍콩 조사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홍콩 시위기간 동안 소매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8월의 매출액은 294억 홍콩달러로 23% 감소했다. 시위가 격화된 9월, 10월은 더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슈퍼마켓은 1.5% 증가하여 보험세를 유지해 홍콩시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퍼마켓이 쇼핑몰이나 중심 상권이 아닌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며, 시위 기간 외출 및 외식을 자제하고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비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한국 농식품의 품목별 홍콩 수출액 |

단위 : 천 달러(USD), %

구분	2018년	2018년 6~9월(A)		2019년 6~9월(A)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24,185	73,455	145,479	72,841	133,716	△0.8	△8.1
신선	91,983	7,104	24,808	8,098	23,667	14.0	△4.6
가공	279,397	65,586	103,427	63,825	89,900	△2.7	△13.1
수산	52,804	766	17,244	918	20,149	19.9	16.9



시위 격해지는 주말, 음식 배달 급증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심화되면서 도로 폐쇄, 대중교통 중단 등 교통 불편과 안전 등을 이유로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홍콩 소비자가 늘어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객도 증가했다. HSB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치품, 여행 및 외식 등의 항목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감소했지만 음식 배달서비스 분야 지출이 증가했으며, 이는 시위 중에도 생존에 필요한 식(食)관련 분야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홍콩의 유명 배달서비스 딜리버루(Deliveroo)와 푸드판다(FoodPanda)도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기간에 주문건수와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에 체류하는 소비자 늘어 온라인 쇼핑 선호

5개월 넘게 장기화된 홍콩 시위는 홍콩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시위를 피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졌다. 홍콩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HKTVmall은 7월~9월 사이 주문 건수와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9년 9월, HKTVmall의 1일 평균 주문 건수는 16,300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40.5%, 전월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며, 또한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6.8% 증가한 78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라고 발표했다. 홍콩은 쇼핑몰의 접근성이 높아 온라인보다는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나, 시위기간 동안 온라인 구매의 장점을 경험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 HKTVmall은 식품분야만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전 품목에 해당하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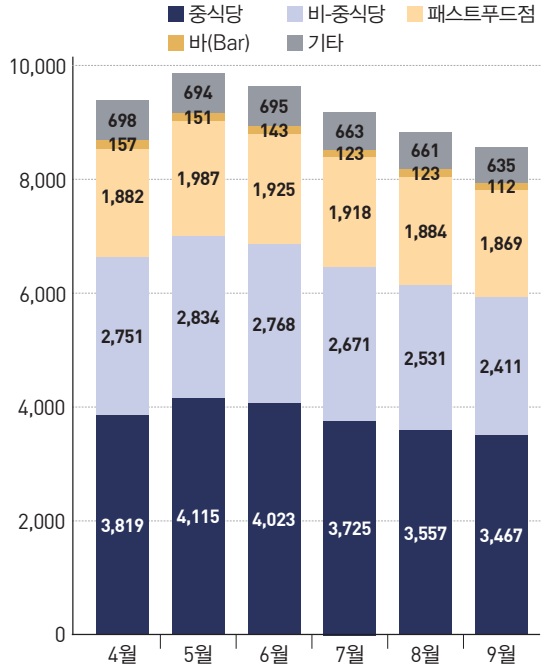
외식시장 3분기 매출, 2003년 사스 이후 최대 감소폭

홍콩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외식업계 매출액은 264억 홍콩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보다 10.6% 감소한 수치이며, 홍콩 정부는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이후 16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감소라고 설명했다. 시위의 중심지인 센트럴, 코즈웨이베이, 완차이와 같은 홍콩 시위의 중심지에 위치한 식당일수록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가 장기화되고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 2019년 2·3분기 홍콩 외식업계 매출액 |

단위 : 백만 홍콩 달러(HK\$)



Key Point

배달서비스, 온라인 쇼핑에는 호재로 작용

장기화되고 있는 홍콩 시위는 관광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져 홍콩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시위 기간 동안 소매업체의 전반적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고가품일수록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필수 식료품의 매출과 비교적 조리가 간편하고 비축이 용이한 제품군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 배달서비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 홍콩 시위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HKFP, 「Explainer: 'Renovation', 'decoration' and 'fire magic' – the businesses targeted by Hong Kong's hit-and-run protesters」, 2019.10.9.3.,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Retail sales by type of retail outlet」, 2019.10.02., www.foodnavigator-asia.com, www.scmp.com, www.fdg.org.hk

출처 : 홍콩 조사 통계국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Report on Monthly Survey of Retail Sales」